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포르투갈, 국채발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려 상존

□ 포르투갈의 국채금리가 사상최대치로 치솟자 유럽중앙은행과 EU는 포르투갈 국채를 매입하고 구제금융기금 확충을 논의하는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빠른 조치를 취함.

- 1월11~13일로 예정된 주변부국가들의 차환목적 대규모 국채발행*이 다가오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국채발행 실패가 예견됨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월8일 현재 전년말대비 64bp 상승한 7.39%로 크게 치솟음.
- 이와 같은 국채금리 급등세는 중국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11억유로 규모의 국채발행·매각 직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(ECB)의 국채시장 개입이 더욱 절실해짐.
 - ECB는 1월10일 포르투갈의 5년·1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는 6.93%로 다소 진정됨.
- 한편 EU는 포르투갈·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비한 구제금융기금의 확충과 기능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EU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함.

* 1월11일: 이탈리아 70억유로(1년 만기), 그리스 15억유로(26주 만기),
1월12일: 포르투갈 7억5천~12억5천만유로(2014년, 2020년 만기),
1월13일: 스페인 20~30억유로(2016년 만기), 이탈리아 40~60억유로(2015년, 2026년 만기)

□ 포르투갈은 1월12일 국채발행·매각에 성공함으로써 구제금융 신청 상황은 모면했으나 대다수 에널리스트들은 6% 후반의 고금리는 현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탱가능하지 못하며 결국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함.

- 포르투갈은 12억5천만유로의 국채발행에 성공했으나 금리가 6.716%에 달함으로써 고비용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.
- 에널리스트들은 포르투갈이 아일랜드와 달리 부동산시장 및 은행권의 붕괴가 우려되지 않고 정부재정도 그리스보다 건전한 편이지만 만성적인 저성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6%대 후반의 금리는 국가재정에 치명적이므로 결국 구제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700~8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 - ECB는 포르투갈(-1.3%)과 그리스(-3.0%)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로지역 국가들이 2011년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함.

(Financial Times 1/12, 1/13, WSJ 1/12, 1/13)